

##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 연구\*

이효주\*\*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은 음악예술을 체제선전의 전면에 내세운 북한 정권의 의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음악예술인 양성이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보통교육부문에서의 소조 활동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음악예술인 양성체계를 '전문 음악예술인'과 '비전문 음악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진행한 연구를 통해 전문 음악예술인 양성은 독연가 육성을 위한 피라미드식 특수교육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전문 음악예술인 양성은 선전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음악소조, 공연을 위해 기량을 쌓는 소년궁전(회관)소조를 통해 이루어짐을 밝혔다.

주제어: 음악정치, 예술의대중화, 음악예술교육,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예술학원, 인민군예술학원, 학생소년궁전(회관), 학교음악소조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2020)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이라는 배경 속에서 ‘음악정치’<sup>1)</sup>라는 문화를 통한 선전선동 기능을 강화하는 독특한 영도 방식을 채택했다. 음악과 정치를 결합시켜 음악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은 ‘음악정치’는 현재까지도 북한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권 수립 초기부터 음악예술의 선전선동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체제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북한은 일찌감치 음악예술인 양성을 위해 평양음악전문학교(1947년 9월), 해주음악전문학교(1947년 10월)를 설립<sup>2)</sup>했으며 이는 국립음악학교(1949년 3월)<sup>3)</sup>의 모태가 되었다. 이로부터 20년 후인 1970년대 초반부터 각 도에 1개 교씩 예술학원(당시의 고등예술전문학교)이 설립되면서 전국을 아우르는 음악예술 교육체계가 완성되었다.

북한의 모든 음악이 김정일에 의해 ‘주체음악’, 즉 “주체시대에 상응하는 음악,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하는 음악”<sup>4)</sup>으로 정리

- 
- 1) “선군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예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독창적인 음악정치를 내놓고 주체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일, “선군시대에 맞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5), 382쪽.
  - 2) 노동은, “북한의 민족음악,” 『한길문학예술총서: 민족음악론』, 제3권(서울: 한길사, 1991), 389쪽.
  - 3) 엄향집,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 4)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3~4쪽.

된 이래, 음악예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체시대를 대변하고 수호하는 음악예술 분야를 둘러싼 북한정권의 지도와 통제는 대를 이어 계속되었으며, 북한 체제 선전에 있어 음악예술인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과 보통교육부문의 소조 활동으로 양분된 북한 음악예술인 교육 및 양성 과정이 음악예술을 중요시하는 북한 정권의 의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 음악예술인들의 양성 체계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음악예술인의 범주가 하나가 아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음악예술인'을 '전문 음악예술인'과 '비전문 음악예술인' 두 부류로 분석하였다. 이에 '전문 음악예술인'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 성악과 기악을 전공한 자로, '비전문 음악예술인'은 보통교육부문의 소조 활동을 통해 성악과 기악 분야의 기량을 쌓은 자로 구분하였다.

음악예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노동당의 지도와 그 영향으로 발생한 대중적 음악예술의 유행은 성악과 기악이 주도하였다. 음악예술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소속된 기관과 단체를 통해 일상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성악과 기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예술은 예술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분야이다. 이에 논문에서는 음악예술 분야 중 성악과 기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음악예술인들을 양성하는 북한의 음악교육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통교육부문과는 다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교육'으로 보고, 음악예술인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의 북한의 교육체계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의 선발, 교육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음악정치 실현에

기초가 되는 음악예술인 양성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남북한의 문헌자료 분석과 함께 북한에서 정규 음악예술교육을 받거나 예술단체들에서 근무했던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탈북민들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는 북한의 음악예술교육체계가 완비된 시기인 1980

<표 1> 면접자 코드 및 인적 사항

No	코드	연령대	성별	재학 시기	진학 대학 (진학 시 명칭)	전공	지역
						경력	
1	A	50	남	1980년대	해산예술학원	기악	양강도 해산시
						예술선전대	
2	B	50	남	1990년대	사리원예술대학	기악	황해북도 사리원
						교원	
3	C	40	여	1990년대	청진제2사범대학	기악	함경북도 청진시
						교원	
4	D	40	남	1990년대	평양음악무용대학	기악	평양시
						교원	
5	E	40	남	1980년대	평양예술학원	기악	평양시
						예술선전대	
6	F	30	여	2000년대	원산예술전문학교	기악	평양시
						장철구상업대학생	
7	G	40	여	2000년대	회령교원대학	기악	함경북도 회령시
						교원	
8	H	30	여	2000년대	평양예술학원	기악	평양시
						예술선전대	
9	I	50	여	1980년대	강계제2사범대학	성악	자강도 강계시
						소년회관 교원	
10	J	50	남	1990년대	함흥예술학원	성악	함경남도 함흥시
						도 예술단 배우	

년~1990년대 이후 전문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자와 비전문 음악예술 교육을 받고, 음악소조를 운영하면서 비전문 음악예술인 양성 교육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전문 음악예술교육 기관을 졸업한 자는 A, B, D, E, F, H, J이며 소조 활동을 거쳐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졸업한 C, G, I는 학교 및 소년회관에서 음악소조를 운영하던 교원으로 비전문 음악예술인 양성에 종사하던 자들이다.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도 예술학원에 선발된 동기 및 입학시험 방법, 입학 후 전공 실기교육, 졸업과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먼저,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우선으로 인터뷰에 관한 정확한 안내를 한 다음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2. 전문 음악예술인 양성

본고에서 정의한 전문 음악예술인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 성악과 기악을 전공한 자이다. 전문 음악예술인을 양성하는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으로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인민군예술학원, 각 도 예술학원이 있다.

이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들은 엄격한 대상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 기준은 우선 음악가적인 천성적 소질과 재능,<sup>5)</sup> 육안으로 보이는

---

5) 천성적인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판정하기 위한 입학 전공 기초시험에서는 청음 시창과 선율 기억 능력, 리듬감, 속도감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험 방법을 채택한다. 최태영, “음악부문 소학반 입학대상자들에 대한 전공기초시험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예술교육』, 제2호(평양: 예술교육출판사, 2016), 36쪽.

생리적 조건 등을 평가하는 내적 기준과 아름다운 체모 등을 평가하는 외적 기준, 출신 성분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천성적 조건인데, 김정일은 뛰어난 예술 인재 선발에서 “천성이 7이고 교육이 3이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sup>6)</sup>

선발 기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발 방법이다. 1949년 김일성은 국립음악학교 학생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도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그 자녀 중 음악적 소질이 있고 전망성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했다.<sup>7)</sup> 하지만 비전문가들의 추천에 의한 음악예술인 후보 선발은 특수교육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대상을 선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정일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978년 5월 4일, 전문가들에 의한 선발제를 원칙으로 내세웠다.<sup>8)</sup> 선발제는 문화성 또는 각 도 예술학원에 상근하는 간부 지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발 방법은 담당자들이 선발 시기에 각 기관 및 학교들에 내려가 기관장들과 학교장들의 협조하에 대상자 인물 심사를 선행한다. 인물 심사 후 진행되는 1차, 2차 심사는 각 도 예술학원 간부 지도원들이 주도하며 최종 심사는 문화성 담당자의 참석하에 진행한다.<sup>9)</sup>

특수교육에 걸맞은 차별화된 선발 기준에 따라 전문 음악예술교육 기관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예술적

---

6) 사설,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의 예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 『예술교육』, 제1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4), 13쪽.

7) 『김일성 전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80쪽.

8) 김영복 외, “예술교육,”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제10권(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2), 87~89쪽.

9) C 씨의 증언.

재능을 연마한다.

## 1) 전문 음악예술 교육기관

북한의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들은 문화성 산하기관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진행되는 조기교육체계<sup>10)</sup>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체계<sup>11)</sup>, 교육과정 중 인정받은 자에 한해 졸업시키는 피라미드식 교육체계<sup>12)</sup>를 갖추고 있다. 이는 독연가라는 특출한 인재를 양

- 
- 10) “북한의 음악조기교육체계는 기악과 성악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기악부문에서의 학령 전 연령기 학생들(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조기교육체계, 둘째는 성악부문에서의 변성 전 연령기 학생들(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조기교육체계이다.” 이효주,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34쪽.
- 11) “북한에서 보통교육은 학교 전 교육(유치원 1년)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정의했고, 고등교육체계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로 나누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6살 이상의 공민으로 규정되었다.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의 대상들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소년 및 청년들이다. 한마디로 보통교육을 토대로 하여 고등교육까지 연속성을 보장하는 교육체계이다.” 『조선말대사전』에서 ‘독연’은 배우가 혼자 출연하여 여러 인물의 역을 수행하는 무대예술 형식, 또는 독주를 뜻한다. ‘독주’를 뜻하는 ‘독연’의 의미를 떠나 북한에서는 성악과 기악을 음악의 2대 구성 부분으로 보고 ‘독창가, 독주가로 전망’ 있는 학생들은 독연가 양성반에 소속시켜 교육하고 있다. 리동옥, “주체음악예술교육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67~69쪽.
- 12) 피라미드식 교육체계는 김정일에 의해 전문 음악예술교육에 적용되었다. 김정일은 예술교육은 예술 수재를 키우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수재형의 대상들을 선발하여 공부시키면서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진급시켜 진짜 예술수재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 선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427~436쪽.

성하기 위한 것으로 음악수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잘 드러낸다. ‘독연가’는 독주를 전문으로 하는 음악가이다.<sup>13)</sup> 김정일은 1975년 5월, 예술 분야에서의 세계 패권을 논하며 “지금 우리의 명성은 주로 앙상블에 의해 보장되며, 앙상블이 예술형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제피아노 콩쿨이나 바이올린 콩쿨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sup>14)</sup> 이후 1977년 평양음악무용대학 독연가 양성강좌가 신설되면서 독연가 양성이 본격화되었다.<sup>15)</sup> 독연가 양성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도 선발된 자에 한정하여 행해지는 특별교육으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의 기량발표회나 <전국청소년학생개인경연>, <2.16예술상> 개인경연<sup>16)</sup>에서 특출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독연가 양성의 최고 단계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박사원 과정이며, 해외 유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 13) ‘독연’은 배우가 혼자 출연하여 여러 인물의 역을 수행하는 무대예술 형식, 또는 독주를 뜻한다[『조선말사전』(제2판)(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361쪽]. 『조선말대사전』에서 ‘독연’은 배우가 혼자 출연하여 여러 인물의 역을 수행하는 무대예술 형식, 또는 독주를 뜻한다. ‘독주’를 뜻하는 ‘독연’의 의미를 떠나 북한에서는 성악과 기악을 음악의 2대 구성부분으로 보고 ‘독창가, 독주자로 전망’ 있는 학생들은 독연가 양성반에 소속시켜 교육하고 있다[리동욱, “주체음악예술교육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67~69쪽].
- 14) 김정일,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정일 전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42쪽.
- 15) 김영복 외, “예술교육,”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84쪽.
- 16) <2.16예술상> 개인경연은 1991년 2월, 김정일의 생일을 기려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뿐 아니라 문화기관의 현직 예술인, 예술부문 대학의 학생들과 교원, 전국의 조기성악반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명백과사전』, 제6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382쪽.



### (1)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은 학부, 박사원 및 박사원 후 교육을 포함하는 연속고등교육체계<sup>17)</sup>를 갖춘 음악예술교육 분야의 최고 전당이다. 1949년 3월 1일 국립음악학교로 시작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있다. 설립 당시 국립음악학교는 전문학교 정도의 중등 음악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과 3년, 대학 과정 안에 의한 고등음악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부 2년의 5년제였다. 국립음악학교는 1952년 말, 김일성의 결정으로 평양음악대학으로 개칭되었으며 학부 구성은 민족기악학부, 현대음악학부, 작곡학부였다.<sup>18)</sup>

1972년 2월 25일 김정일은 고등교육성 정령 제2호를 발표해 평양음악대학과 평양예술대학(무용전문대학)을 통합하여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후 1972년 11월 두 대학의 통합이 진행되었다.<sup>19)</sup> 평양음악무용대학의 사명은 무대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기량을 가진 독연가들을 키워 내는 것이다.<sup>20)</sup> 대학에는 1979년까지 인민반, 예과, 전문부, 학부 등 4개의 교종이 있었고 교육단위는 전문부(인민반, 예비과, 전문부)와 학부로 구분하여 교육교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

---

17) “연속고등교육체계는 대학 본과 교육과 박사원 및 박사원 후 교육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과학기술 핵심 육성 교육체계이다.” 『광명백과사전』, 제7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105쪽.

18) 리면상, “음악대학이 걸어온 10년,” 『조선음악』, 제12호(평양: 조선음악출판사, 1959), 30~31쪽.

19) 김영복, “주체의 음악예술교육,” 『주체음악총서』, 제13권(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421쪽.

20) 위의 책, 340쪽.

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전문부에 편성되면서 연령·심리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책으로 연령·심리적으로 비교적 공통성을 가진 인민반과 예비과를 합친 예비교육학부를 신설해 전문부와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sup>21)</sup>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성악 학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979년이다. 그 이전까지는 민족음악학부와 양악학부에 분리되어 전공 분야에 따른 성악가들을 양성하고 있었다.<sup>22)</sup>

당시 평양음악무용대학은 정규교육체계와 통신 및 재직반, 연속고등교육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통신교육체계는 1977년, 재직반은 1978년에 만들어졌으며 두 과정은 일하면서 배우는 사회교육체계에 속한다.<sup>23)</sup> 두 과정의 공통점은 교육 대상 모두 현직의 음악예술인이라는 것이며 다른 점은 통신교육과정은 대학 졸업증이 없는 대상들의 학위 취득과정이고 재직반은 실력 배양을 위한 재교육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교육체계는 현직 음악예술인들의 전공 실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연속고등교육체계는 2001년에 수립되는데,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 내에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박사원을 가진 대학은 평양음악무용대학이 유일하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2006년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sup>24)</sup>으로, 2015년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으로, 2019년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으로<sup>25)</sup> 명칭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김원균명칭

21) 김영복 외, “예술교육,”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28쪽.

22) 위의 글, 27쪽.

23) 위의 글, 33~34쪽. J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함경남도 예술단에 들어가 예술단 생활을 하면서 함흥예술대학(당시)에서 통신교육과정을 마쳤다.

24) 정론, “나래치라 주체예술의 미래여,” 『예술교육』, 제5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15), 12쪽.

25)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KINU 연구총서』,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으로<sup>26)</sup> 불리고 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은 2개의 부속예술학원인 평양제1음악학원과 평양제2음악학원을 가지고 있다. 평양제1음악학원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있다. 이 학원은 1997년 3월 이전까지 평양시 예술학원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평양음악무용대학 부속 예술학원으로 소속되었다. 평양제1음악학원으로 개칭된 것은 2015년이다. 평양제1음악학원은 평양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기초교육을 실시한다. 평양제1음악학원을 졸업하면 중앙예술단체 및 평양시 내 예술단에 배치받아 활동하거나 학부 진학 전 전문부에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대학반으로 편입한다.

평양제2음악학원은 금성학원이 전신이며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다. 금성학원은 이전의 금성1중학교이며 1989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설립되면서 그다음 해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부속중학교가 되었다. 금성1중학교는 처음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에 있었으며 1989년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당시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축전거리가 형성되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건립과 함께 금성1중학교가 금성1중학교와 금성2중학교로 분리되었다. 이로써 만경대학생소년궁전부속으로 금성1중학교, 평양학생소년궁전부속으로 금성2중학교가 설립된다. 금성제1중학교는 2003년 금성학원으로 개칭되었고 현재는 2015년 김정은의 지시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부속

---

20~24호(2020), 84쪽.

26) “수기: 우리가정의 이야기-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연구사 공훈배우 석란희,” <https://www.youtube.com/watch?v=U0eJ4e4t5bM>(검색일: 2023년 1월 20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종합대학 교수 신영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30130086000042>(검색일: 2023년 2월 25일).

평양제2음악학원이 되었다. 평양제2음악학원은 전자악기연주가와 대중가요가수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의 졸업생들도 학부 졸업 후 전문예술단에 배치되어 활동하거나, 학부 진학 전 전문부에서 김원군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다.<sup>27)</sup>

## (2) 인민군 예술학원

인민군예술학원은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다. 인민군대 안의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민군예술학원은 인민군협주단의 배우 양성부를 해산하고 설립한 음악예술교육기관이다. 1978년 5월 4일,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장과와의 담화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인민군대에서도 예술인 후비 양성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예술인 후비를 자체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내오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28)</sup>

인민군예술학원의 임무는 인민군대 안의 예술인 후비, 특히 인민군협주단의 예술인 후비를 양성하는 것이다. 당시 인민군대 안의 전문예술인 대열에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졸업생들이 전문가들과 부대들에서 예술활동을 하던 군인 중 선발된 비전문가들이 혼재해 있었다. 김정일은 “인민군대안의 예술인들을 사회전문교육기관들에서 양성하면 화약내가 나는 예술인으로 키우기 힘들다”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예술처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것으로 하려면 인민군

---

27) 평양제1음악학원과 평양제2음악학원에 관한 자료는 북한의 예술교육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잡지 『예술교육』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28) 김정일, “인민군예술학원의 임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 부장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253쪽.

예술학원에서 예술적 기량이 높고 화약내가 나는 혁명군대의 참다운 예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라고 하였다.<sup>29)</sup>

인민군예술학원에서는 학생 선발 대상의 인물심사 기준을 낮게 두었다. 각 도 예술학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 학생 선발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물과 체격이라고 볼 때 이것은 인민군예술학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인민군예술학원의 학생선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회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보다 낮은 것은 인민군예술학원의 학생 선발을 인물 위주로 하지 말고 기량 위주로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민군예술학원의 입학이 쉬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군예술학원의 지도기관은 인민군총정치국으로 평양에 위치한 인민군 유일의 음악양성기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군예술학원 생활은 인민군 복무연한에 포함되며 졸업 후 조선인민군협주단,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앙의 예술단체에 배치받는다.

### (3) 각 도 예술학원

북한에서 각 도에 예술학원이 설립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1972년 10월 5일, 김일성은 자강도를 현지지도 하면서 중앙예술대학 진영으로는 지방들에게까지 예술인들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각 도에서 예술인 후비 양성체계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각 도에 예술전문학교를 세워 지방들에서 필요한 예술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sup>30)</sup> 김일성의 지침이 있는 1년 후인 1973년 2월 16일, 자강도

---

29) 『김정일 선집』, 제8권, 254쪽.

〈표 13〉 각 도 예술학원 설립 시기 및 위치

설립 일자	명칭	위치
1973년 2월 16일	2.16예술전문학교	자강도 강계시
1974년 4월 20일	함흥예술전문학교	함흥시 사포구역 혜화동
1974년 5월 6일	남포예술전문학교 -현재 평성예술학원-	평안남도 평성시 중덕동
1975년 9월 1일	신의주고등예술전문학교	평안북도 신의주시 개혁동
	사리원고등예술전문학교	황해북도 사리원시 철산동
	해주고등예술전문학교	황해남도 해주시 구제동
	개성고등예술전문학교	개성시 만월동
	청진고등예술전문학교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동
	해산고등예술전문학교	량강도 해산시 성후동
	원산고등예술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석우동
	평양고등예술전문학교	평양시 대동강구역

자료: 김영복 외,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과 편집자들의 증언을 참고로 작성

에 ‘2.16강계예술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4년 함흥예술전문학교와 남포예술전문학교, 이어 1975년에 설립된 8개 도의 예술전문학교들은 학제를 승격하여 고등예술전문학교로 창립하였다.

예술전문학교 설립 시 학제는 예비반 2년, 전문반 3년, 고등반 3년으로 모두 8년제였고 전공학과는 기악, 무용, 성악, 산업미술, 조선회화, 조각학과였다. 1979년 6월 15일에는 각 도 예술학원의 2년제 예비반을 3년제로 개편하였고, 1979년 8월 31일에는 음악사범강좌와 예술소조지도강좌를 신설했다. 이후 학제 변경은 1980년 8월 28일 인민학교종에 맞먹는 기악중심의 인민반, 1986년 7월 26일의 학제 개편에서는 인민반 4년(초등), 예과 3년(중등), 전문반 3년(고등), 학부 3년제(대학)

30) 김영복 외, “예술교육,”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52쪽.

로 총 13년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 2) 전문 음악예술 교육과정

북한의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들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 대학을 본으로 삼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교육내용

북한의 음악예술인은 당과 수령을 위한 선전선동을 함으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은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음악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 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정치사상교양과목을 전공 과목과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양과목으로는 김일성노작, 김정일의 ‘음악예술론’ 등이 있으며 전공과목에는 전공실기와 조선음악사, 외국음악사, 복성학, 화성학 등이 속한다.

북한에서 첫 음악 관련 교재들은 1955년 초에 편찬되는데, 구체적으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악분야의 교과서로는 교측본, 연습곡집, 교재곡집 등이 있다.<sup>31)</sup> 교측본에는 전공 악기별에 관한 기본 주법을 소개하고 이 주법들을 숙련할 수 있도록 쉬운 편곡으로 된 가요들이 수록되어 있다. 연습곡집은 예비반, 전문부, 학부로 나

---

31) “교측본은 연주기초기술의 주법들을 과학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교과서이며 연습곡은 교측본에서 습득 된 기술 수법들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연주에 활용하는 교과서이다. 교재곡은 작품의 기술 형상적 요구에 맞게 기술수법들과 표현수법들을 종합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교과서이다.” 김승규, “기초교육 단계에서 교재리용과 경험,” 『예술교육』, 제3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5), 58쪽.

뉘어 출판되며 교측본을 통해 습득한 기본 주법 및 음악형상의 각종 요소를 심화하여 익힐 수 있다. 교재곡집에 수록된 기악곡들은 북한 음악의 특성상 가사가 있는 성악곡들로 편곡되었다.

예과 때엔 교측본이 1번부터 100번까지라면 선생님과 함께 한 곡도 에누리 없이 연습합니다. 100번까지 있는 연습곡을 1학기에 50, 2학기에 50으로 나누어서 하죠. 학기말이나 학년말 시험 때엔 심사성원들이 지정하는 번호를 연주해야 합니다. 전문반부터는 연습곡에 연연하지 않죠. 전과 선생님이 주시는 악보들만 연습합니다. \_E 씨의 증언

피아노 기초도 여기와 같아요. 바이엘, 체르니, 하농 등, 그런데 그냥 연습곡이라고 부릅니다. 연습곡 1번, 2번 이렇게요. 외국곡들도 많이 합니다. \_D 씨의 증언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 성악분야의 교재곡들은 가요, 민요, 계몽기 가요, 혁명가요, 혁명가극 주제가, 외국노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년별로 가요는 한 학년에 평균 12곡, 우리의 국악에 해당하는 조선민요 5곡, 혁명가요 2곡, 「고향하늘」과 같은 계몽기가요 1곡,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장르’<sup>32)</sup>라고 할 수 있는 5대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의 주제곡들은 평균 2~3곡 정도 가르친다.<sup>33)</sup> 외국곡들도 매

---

32) 이현주, “북한 피바다식 혁명가극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음악학』, 제3호 (2002), 381쪽.

33) 김정일은 1999년 4월, 당시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학과 학생들이 ‘세계적 명작들인 우리나라의 5대 혁명가극의 노래들을 통달하고 대학을 졸업’할데 대한 지



학년에서 교육하며 이탈리아 노래 「잔 파루치아」, 중국 노래 「난 니완」, 러시아 노래 「어머니 책망마오」 등 다양한 곡을 다루고 있다.<sup>34)</sup>

폐쇄된 국가로 알려진 북한이지만, 전문 음악예술교육 기관에서 다루는 교재 곡에 여러 외국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이 세계적 수준에서 음악예술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교육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모든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들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 종합대학의 전공별 교재곡들을 획일적으로 사용한다.

## (2) 교육방법

### ① 개별 교수

전문 음악예술교육에서 1 : 1 개별 교수는 기본 교수 형태이다. 하지만 전공실기 교육의 교수 형태가 처음부터 개별 교수였던 것은 아니다. 개별 교수로부터 교원과 학생사이 도제관계가 형성된다는 주장, 그리고 학생들에게 개인주의를 조장시킨다는 주장에 따라 조별교수나 집체교수를 주장하는 강좌들도 있었다.<sup>35)</sup> 전공교수의 형태가 개별교수로 규정지어진 것은 김정일이 예술은 그 자체가 독창성과 비반복성을 요구하므로 예술교육에서는 매 개인의 예술적 재능과 개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 수 있는 개별수업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1970년대 말경이다. 김정일은 음악 실기교육에서 개별 교수는 “우리당의 일관한 방침”이라면서 “새싹을 특출한 예술가적 기량과 개성적

---

침을 내렸다. 김영복 외, “예술교육,”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142쪽.

34) 전영선, “북한의 음악예술교육체계와 예술교육기관,” 『남북문화예술연구』, 제 11호(2012), 15~16쪽.

35) 김영복 외, “예술교육,”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223쪽.

특성이 뚜렷한 독연가로 키우자면 전공 실기교육을 철저히 개별교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sup>36)</sup> 전공 실기교육은 전과방<sup>37)</sup>에서 이루어진다.<sup>38)</sup>

## ② 기량발표회

음악예술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교수의 한 형태인 전공실습은 교육의 핵심이다. 음악예술이론이 해박하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음악예술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없으므로 전공실습을 통해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들은 ‘목요기량발표회’라고 불리는 기량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전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기량발표회는 독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음악기초이론과 실기훈련을 통해 평소에 연마했던 음악적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대에서 음악예술인들은 관중과의 호흡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무대가 현장인 음악예술인들에게 기량발표회는 개별 실기 교수만으로는 향상할 수 없는 종합적 실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970년대 초 영화계에서부터 시작된 기량발표회는 그 목적이 예술인들의 기량 검토가 아니라 기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는 김정

---

36) 『김정일 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280쪽.

37) 전과방은 전공실기를 위한 연습실을 말한다.

38) “전과방이라는 것이 1전과방, 2전과방, 소해금 1전과방, 3전과방 쪽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전과방이 2전과방이었어요. 그 전과를 받으러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그 여자, 여자선생님이였거든요. 선배들을 다 내보내고 저 혼자만 따로 놓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북한의 예술교육: 북한음악구술자료집』(서울, 국립국악원, 2013), 61쪽.

일의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부문의 예술인들뿐 아니라 전문 음악예술 교육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 기량발표회는 예과 3학년부터 진행된다.<sup>39)</sup>

김정일에 의해 제도화된 기량발표회는 북한의 음악예술인재 양성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방법으로 꼽힌다.

### ③ 실력 평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의 학생 실력평가는 학습 과정평가와 시험평가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교원들이 엄격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학생들의 실력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학교들에서 교육강령과 시험규정의 요구대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sup>40)</sup>

시험평가는 교육내용과 기술 기능 수준, 숙련 정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열 평가하는 형식이다. 시험평가에는 필답, 구답, 실기시험 등이 속하며 학기말, 학년말 연 2회 시행된다. 학생들의 졸업 연주도 시험평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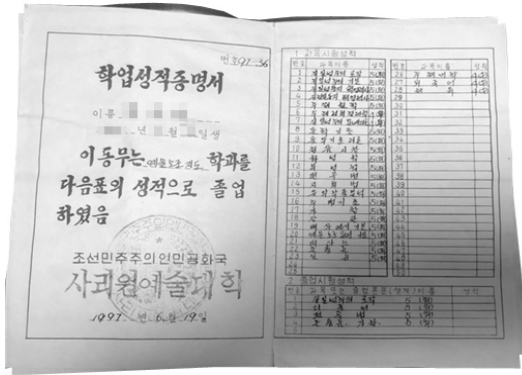
전공 졸업 연주는 관현악에 맞춰서 합니다. 저의 대학에는 대학관현악단이 있거든요. 첫 곡은 ‘라흐마니노브’ 피아노협주곡 2번을 했어요. 두 번째 자유곡은 북한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에요. 꼭 혁명가극에서 나오는 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_D 씨의 증언

---

39) 위의 책, 176쪽.

40) 지복순, “시험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속에서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예술교육』, 제3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8), 52쪽.

〈그림 1〉 예술학원 학업성적증명서



자료: 면접자 B 씨 제공.

졸업시험에서 양성과 민성, 그리고 장르에 따라 지정곡이 다르게 나옵니다. 테너는 ‘전호석의 나의 노래’가 지정곡이었어요. 그리고 소프라노 곡을 테너로 변조해서 부르기도 했고, 혁명가극 노래도 불러야 했습니다. J 씨의 증언

한편, 학습 과정평가는 항시 진행된다. 학습 과정평가는 시험 범위나 주어진 환경에서 치르는 시험평가와는 달리 교수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교육과정 중 학생이 교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경우, 강의 시간의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기량발표회도 실력평가에 포함된다.

학업성적증에 반영되는 점수는 시험평가와 학습 과정평가의 평점이다. 아래 예술학원 학업 성적증명서를 보면 최우등(5점), 우등(4점), 보통(3점)으로 성적이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비전문 음악예술인 양성

본고에서 정의한 비전문 음악예술인은 보통교육부문의 소조 활동을 통해 성악과 기악분야의 기량을 쌓은 자를 의미한다. 비전문 음악예술인이 소속된 소조는 예술소조로, 예술에 취미를 가진 비전문가들로 조직된 창작과 공연을 하는 대중적 소모임을 말한다.<sup>41)</sup> 김일성은 1959년 7월 1일, 제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의 담화에서 “우리의 예술을 옹게 발전시키려면 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한다”<sup>42)</sup>고 하면서 각 기관·기업소별로 예술소조 및 예술선진대를 만들었다.

각 단위의 예술소조원들은 중등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다. 중등교육기관의 예술소조는 학교음악소조를, 사회교육기관은 학생소년궁전(회관)이라는 사회교양거점을 가리킨다. 소조 운영은 사회정치활동의 한 형태이며 학교음악소조와 소년궁전(회관)의 소조에 망라된 학생소년들은 오전 정규수업을 마치고 오후 소조 활동에 참가한다.

#### 1) 학교 음악소조 활동을 통한 양성

사회정치활동의 한 형태인 음악소조 운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

---

41) “예술소조는 근로자들과 학생들, 인민군인들이 일하고 배우는 과정에 체험한 현실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만들고 공연함으로써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문화정서생활을 꽃피워 문학예술을 균중적으로 발전시키며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함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조직된다.” 『조선대백과사전』, 제29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283쪽.

42) 김일성, “사회주의 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자: 제7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 한 담화,” 『김일성 전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89쪽.

은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 활동이다. 사회정치활동에는 '좋은일 하기 운동'과 '선전대 활동'이 있다. 음악소조 활동은 선전대 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학교 음악소조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개설되므로 모든 학교에 음악소조가 존재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또한 운영과목도 일률적이지 않으며 음악교원의 전공에 따라 음악소조의 형태가 달라진다. 음악소조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음악소조와 이를 활용한 사회정치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장은 관현악소조(취주악)소조와 성악소조 등 여러 음악소조를 운영한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관현악소조보다 취주악 또는 경음악소조가 많이 운영되며 그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취주악소조가 담당한다. C씨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기념일 행사에서 행사의 흐름에 없어서는 안 될 '행사곡'들이 있다고 한다. 이때 취주악단이 행사음악 반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은 교내에 취주악소조를 둘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학교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교 성악소조는 교무 행정 및 청년동맹에서 조직하는 학생소년예술선전대활동에 참가하며 학생소년예술선전대 활동성과는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워냈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요약하면 학생소년예술선전대는 학교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며 학생소년예술선전대는 예술선전대 형식을 위주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정치활동의 한 형식이다. 다른 음악소조들이 있지만 성악소조가 학생소년예술선전대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이 활동의 선동 형식이 성악과 화술, 아코디언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10~15명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소편대 구성은 때와 장소, 음악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선전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소년예술선전대 활동에는 모내기철에 진행되는 학생소년예술선전대, '5월과 11월 사고방지대책월간' 학생소년예술선전대, '3월과 9월 반찬칩투쟁월간' 학생소년예술선전대, 설맞이 공연이 있다. 학생소년예술선전대는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며, 이외 시기별로 국가에서 중요 건설장으로 지정한 현장에서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한창 모내기철에는 오전 수업을 하지 않고 모판으로 가죠. 우선 모내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소조 책임자가 실적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모내기 전투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에게 우리 ○○중학교 학생소년예술선전대는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두를 떤 다음 혁신자를 소개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형식으로 30분가량 선동합니다. \_C 씨의 증언

C 씨는 학생소년예술선전대 활동 중 가장 활발한 것은 '모내기철'과 '사고방지대책월간'에 진행되는 선전이라고 증언했고,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벗어나 함경북도의 '어랑천발전소' 건설장에도 다녀왔다고 한다.<sup>43)</sup> '어랑천발전소'는 김정일의 지시로 '국가의 기본 전투장'

43)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구역청년동맹에서 우리 학교 음악소조를 어랑천발전소 건설장으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난감했어요.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교통수단부터 학생들이 먹을 식량, 반찬감들을 자체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숙박은 천막(텐트)에 단체로 들어가야 했죠. 트럭을 타고 건설장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정작 발전소 건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니 불평 같은 거 짝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전투장이었습니다. 우등불을 지피고 일하는 건설자들의 얼굴은 공사장 먼지로 뿌연게 매달릴 되어 있었고, 솔직히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게 민망할 정도였죠. 저는 그때 학생들에게 경제선동 하면서 옷에 먼지가 묻어도 털지 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때로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단련되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면서 교원으로서 긍지를 느끼기도 했어요”(C 씨의 증언).

으로 지정된 건설 현장이며 각 시·군(구역)의 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서 가장 인정받는 학생소년예술선전대 및 공장 기동예술선동대를 선발하여 교대로 경제선동을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음악소조는 각종 기념일 축하공연 등 일반인들의 경축 공연들에게도 찬조 출연한다. 이러한 음악소조 활동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은 학생소년예술선전대 활성화를 위해 소조 운영을 학교 전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기별로, 주제별로 기획된 학생소년 예술선전대 진행 실적들은 고스란히 당 및 행정기관에 보고되며 학교장들은 당 및 행정기관들로부터 학생소년예술선전대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관별 음악예술소조 활동을 많이 장려한다. 따라서 예능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는 학교들에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집중된다. 통상 거주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또는 전학)시키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sup>44)</sup> 이는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학교장의 의도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외에도 학교음악소조는 전국적 차원의 학생소년예술축전과 음악예술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학생소년개인경연에 참가한다.

북한의 중고등 학교는 기본적으로 하루 6교시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각종 행사와 노동으로 빠진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7교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음악소조원들의 소조 활동 시간은 보통 학교 수업 후 2~3시간 정도이다. 음악교원은 소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

44) I 씨의 증언.



〈표 3〉 학교 음악소조원의 일과표

오전		오후	
등 교	7:40	6교시	14:00~14:45
1교시	8:00~8:45	7교시	14:55~15:40
2교시	8:55~9:40	총화 및 정돈	15:40~16:00
3교시	9:50~10:35	소조 운영	- 6교시 후, 15:00~18:00
업간체조	10:35~10:55		
4교시	10:55~11:40		- 7교시 후, 16:00~18:00
5교시	11:50~12:35		
점심 시간	12:35~13:50		

자료: 면접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저자 작성.

위해 학생들의 개별기량훈련과 예술선전대 활동을 위한 앙상블 훈련을 병행하며 기량이 높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정은 학생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한다.

## 2) 학생소년궁전(회관)소조 활동을 통한 양성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산하 기관인 학생소년궁전(회관)은 학생소년들에 대한 지덕체교육의 종합적 학교이며 전문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sup>45)</sup> 다시 말해, 학생소년궁전(회관)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전공 기술을 숙련하고 체득하는 곳이다. 1961년 6월 6일 개성학생소년궁전이 북한 최초의 학생소년궁전으로 개관하였다.<sup>46)</sup>

45) 『광명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115쪽.

46)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61년 6.6절을 계기로 창립된 이 궁전의 대지는 무려 5만평방미터를 넘으며 연 건축넓이는 6,068평방미터에 달한다.”

뒤를 이어 1963년 9월 10일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창립되었다.<sup>47)</sup> 평양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어려서부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도록 교육·교양하며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종합적 학교로서 전문적인 과외교양의 거점 적 역할’을 사명으로 한다.<sup>48)</sup> 평양학생소년궁전의 궁전 활동에서 얻은 과외교양 경험과 자료 및 지도이론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이를 전국의 과외교양기관들에 일반화하고 있다. 과외교양 거점에서 가장 큰 궁전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1984년 7월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 거리에 건설되었고, 학생들을 위해 김 부자들이 베푼 업적을 알리는 대표적인 아동궁전이다.

현재 북한의 각 도에는 학생소년궁전이, 시·군(구역)에는 학생소년회관이 있다. 학생소년궁전(회관)의 기본 사명은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에 따른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기본 운영 방식은 소조 활동이다. 학교음악소조와 학생소년궁전(회관)의 공통점은 방과 후 과외 활동이라는 것이며, 다른 점은 같은 교종의 학교소조와는 달리 학생소년궁전(회관)은 서로 다른 교종의 학생들의 집합이라는 것이다.<sup>49)</sup>

구체적으로 학교소조 운영의 기본 활동단위는 그 학교 내에 있는 소조이지만 학생소년궁전(회관)의 기본 활동단위는 각 도 및 시·군(구역)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조이다. 특히 학생소년궁전(회관) 하나의 소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의 각이 한 나이와 서로

---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273쪽.

47) 전영선 외, “북한 예술의 창작지형과 21세기 트렌드”(서울: 역락, 2009), 201쪽.

48)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9), 278~290쪽.

49) 이효주,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 연구,” 85쪽.

다른 지적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망라된다. 또한 소조 생활 연한은 물론이고 한 소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전공 기량도 천차만별이다.

학생소년궁전(회관)의 설립목적과 운영 지침은 동일하지만 평양(이하 중앙), 도, 시·군(구역)의 환경에 따라 소조 활동의 규모와 종류,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의 학생소년궁전의 음악관련 소조에는 기타소조, 관현악소조, 민족기악소조, 가야금소조, 손풍금소조, 성악소조 등이 있지만 북한의 중앙에 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에는 이에 더하여 피아노소조, 바얀소조 등 지방보다 더 많은 소조를 가지고 있다. 도 학생소년궁전과 시·군(구역) 소년회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도 학생소년궁전의 소조수가 10여 개라면 시·군(구역)의 소년회관에는 5~6개 정도의 소조밖에 없다.<sup>50)</sup>

학생소년궁전(회관)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운영된다. 그러나 도 학생소년궁전과 시·군(구역)의 소년회관은 지역의 규모 차이로 인해 소조원 모집사업에서 차이가 보인다. 도 소재지에 위치한 학생소년궁전은 인구 밀도도 높고 음악예술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높다 보니 소조원 모집이 원활하다. 그러나 시·군(구역)소년회관 소조들은 학생선발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구역 내 음악소조 활동이 활발한 특정 학교들이 있는 것과 관련된다. C 씨의 증언에 따르면 교내 음악소조 활동이 잘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굳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 소년회관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학생소년궁전(회관)들은 가까운 거리에 부속학교를 두고 있다. 평양 학생소년궁전의 부속중학교가 금성중학교인 것처럼 지방의 학생소년궁전마다 부속중학교가 있다. 평양의 소년궁전들은 부속학교에 등록된

---

50) I 씨의 증언.

학생들로 소조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인터뷰에 따르면 부속학교라고 하여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소년회관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부속학교 내에 음악소조가 있으면 학교 음악소조에 다닌다고 한다.<sup>51)</sup>

학생소년궁전(회관)소조의 지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박사, 학사, 예술인 등 저명한 사회 활동가 등 직 외 역량들이 참여한다.<sup>52)</sup> 해당 분야의 전공자이면 교원자격이 없어도 소조지도를 할 수 있다. 소조지도 역량을 전공자들로 구성한 것은 체험활동의 거점답게 실전 경험이 많은 전공자의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학생소년궁전(회관)의 주요 활동은 매해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학생 설맞이 공연과 각종 기념일 공연, 외국인 축하공연(외사공연)이다. 이와 같은 학생소년예술종합공연은 북한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 그 외에도 공장, 기업소, 건설장, 농촌 등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소년선전대활동도 있다.<sup>53)</sup> 학생소년궁전(회관)의 학생소년예술종합공연과 다양한 예술활동은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공고히 하고 실천 능력을 연마하여 음악예술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질 기회를 제공한다.

---

51) C 씨의 증언.

52)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240쪽.

53) 김연순, “경제선동을 위한 안삼블지도를 통하여 연주수법, 감정정서의 표현능력을 키워주었다.” 『예술교육』, 제5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15), 24쪽;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345쪽.

### 3) 경연을 통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으로의 편입

북한은 매해 보통교육부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이하 개인경연)을 조직한다. 그 목적은 개인경연 입선자들의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의 편입에 있다. 보통교육부문의 개인경연은 2008년 이전까지 전국학생소년독창독주독무경연이었다. 개인경연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에서 주최한다.

개인경연은 음악예술인 수재를 선발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경연조직도 매우 면밀하게 짜인다. 교종별, 성별, 성악(민족성악, 양악성악)의 파트별에 따르는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을 준비하며 각 악기군의 독주곡 지정곡은 물론 편곡자의 이름까지 정해 준다. 인터뷰에 따르면 개인경연은 소년조와 청년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경연 형식은 성악에서 민성, 양성, 기악 분야도 민악(민족기악), 양악(양악기악), 관악 파트로 나뉜다고 한다.<sup>54)</sup>

개인경연 절차는 1선 구역청년동맹, 2선 시(군) 청년동맹, 3선 도 청년동맹순으로 진행하며 1선·2선은 구역 또는 시(군) 청년동맹 학생부 부원 및 학생부위원장, 그리고 학생소년회관 관계자들이 심사한다. 여기서 당선되면 도 청년동맹 심사를 거치는데 경연은 도 학생소년궁전에서 한다. 도 경연 심사도 2심까지 하며 도급 학교부문과 소년회관부문에서 모두 올라오니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참가자들의 열의도 높다.

도 학생소년궁전에 가면 3일간 궁전 안팎이 개인경연에 참가하려고 온 학생들과 교원, 학부모들로 꽉 찹니다. 저희는 청진시 내에 있었으

---

54) G 씨의 증언.

니 그나마 괜찮았지만 군 소년회관이나 군 단위 일반학교에서 올라오는 교원들과 학생들은 그때부터 돈을 쓰죠. 숙박부터 시작해서 모두 자부담이니까요. \_C 씨의 증언

개인경연은 도 청년동맹 과외지도처에서 주관한다. 도 경연 심사위원은 6명 정도이며 여기에는 도 청년동맹 관계자와 과외지도처장, 과외지도처 예능지도원, 궁전 내 작곡가 또는 작가, 그리고 국가심의회 원회 담당자가 속한다. 도 청년동맹 최종 심사에서 합격 된 참가자들은 각 도 과외지도처 예능지도원의 인솔하게 평양으로 간다.

C 씨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개인경연 결승전 분위기는 많이 살벌하다고 증언하였다. 경연 출연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경연형식은 1선에서 지정곡, 2선에서 자유곡을 한다. 심사 성원은 7~8명 정도로 매 학생의 발표가 끝나면 풋말로 점수를 알려거나 쪽지에 점수를 적어 합산 후 평점을 낸다. 경연장에는(무대 옆 및 객석) 담당 교원들도 들어갈 수 없으며 학생의 발표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한다. 평양 결승전까지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담당 교원들은 경연 심사 최종 발표 시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북한은 전국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에서 입선한 학생에게는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또는 금성학원에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개인경연을 통해 입성한 학생들이 평양음악무용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시험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북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판정하고 독연가 후보로 선발하는 것은 가장 과학적인 선발방법의 하나이며 음악수재양성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도'라고 설명한다.<sup>55)</sup>

전국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으로 편입하여

독연가로 성장할 수 있는 등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학생소년궁전(회관) 출신으로 전문 음악예술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비율은 적지만, 전국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은 입상 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보통교육 부문과 특수교육부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 4. 결론

정권 수립 초기부터 음악예술 분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지도목표는 시종일관 ‘전국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이다. 이를 위해 정권은 전국적 차원에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공장, 농장, 인민군부대, 대학, 학교 등 하부 단위에까지 조직화된 예술소조 및 예술선전대를 조직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예술을 중요시하는 북한 정권의 의도와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의 음악예술인들의 양성체계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음악예술인의 범주를 ‘전문 음악예술인’과 ‘비전문 음악예술인’ 두 부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 음악예술인’은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 성악과 기악을 전공한 자로, ‘비전문 음악예술인’은 보통교육부문의 소조 활동을 통해 성악과 기악 분야의 기량을 쌓은 자로 구분하였다.

북한에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

---

55) 김영복, “주체의 음악예술교육,” 『주체음악총서』, 327쪽.

학과 인민군 예술학원, 각 도 예술학원이다. 이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들은 문화성 산하기관으로 천성적 조건을 최우선시한 엄격한 대상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독연가를 양성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진행되는 조기교육체제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체제, 교육과정 중 인정받은 자에 한해 졸업시키는 피라미드식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는 북한 곡을 편곡하여 교육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 무대에서 인정받는 음악예술인 양성을 위해 외국곡도 중요하게 다룬다. 개별교수법, 기량발표회, 실력평가 등의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북한의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의 특징이다.

비전문 음악예술인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진행되는 보통교육부문의 학교음악소조와 사회교양거점인 도 학생소년궁전(회관) 소조 활동을 통해 양성된다. 학교 음악교원의 제안을 받거나 음악예술에 관심이 있는 경제력을 갖춘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음악소조에서는 선전대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소년예술선전대의 모내기철, 사고방지대책월간, 반간첩투쟁월간 등에 진행되는 선전대 활동, 기타 중요 건설장 현장에서의 선전대 활동이 있다. 사회교양거점인 각 도 학생소년궁전과 각 시·군의 학생소년회관은 그 규모와 소조의 운영 종류 및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학생소년궁전(회관) 소조원들은 직 외 역량의 지도를 받으며, 설맞이 공연과 각종 기념일 공연, 외사 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음악예술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실천 능력을 연마한다.

보통교육부문의 학생들은 매해 전국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에서 입상하면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개인경연 입상 시 전문 음악예술교육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은 보통교육부문과 특수교육부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정권 설립 이후 김일성이 ‘예술의 대중화’를 논한 이래로, 김정일은 ‘전국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를 교육목표로 명명하고 각 도에 예술 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문명국을 국가건설 목표로 내세우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라고 지적한 김정운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과 음악예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결국 음악예술인 양성과 연결된 ‘온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의 실재를 연구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세습을 보여주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음악정치 실현에서 음악예술의 비중을 중시하고 이에 따른 음악예술교육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음악예술인 양성을 위한 선발, 교육방식 및 교육내용,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음악정치 실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음악예술인 양성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음악예술인 양성을 ‘온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의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양성된 음악예술인들의 활동과 실재는 북한의 음악예술과 정치의 결합을 더 면밀히 밝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해외파 음악예술인과 음악예술인의 실제 활동과 영향을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음악예술인은 ‘온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국보적 예술단’<sup>56)</sup>인 모란봉악단과 삼지연악단의 전문 음악예술인부터 각종 생산 현장에서 활동하는 항일유격대식 기동예술선전대에 소속된 비전문 음악예술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별 예술축전 등 대중문화사업 역시 ‘온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

---

56) “모란봉악단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우리 당의 친솔 악단이며 국보적인 예술단체이다.” 『노동신문』, 2013년 1월 1일.

증화'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전문, 비전문 음악예술인들의 활동 및 실제와 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관한 연구는 음악예술의 정치적 효과를 드러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삼겠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7월 4일 / 채택: 8월 11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김일성, 『김일성 전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일성, 『김일성 전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_\_\_\_\_, 『김정일 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_\_\_\_\_, 『김정일 선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_\_\_\_\_, 『김정일 선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_\_\_\_\_, 『김정일 전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 \_\_\_\_\_,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영복, “주체의 음악예술교육,” 『주체음악총서』, 제13권(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 김영복·홍국원·김혜숙·김영일·김광철·김강혁, “예술교육,”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제10권(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2).
- 『광명백과사전』, 제6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 『광명백과사전』, 제7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 『조선대백과사전』, 제29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 『조선말사전』, 제2판(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조선중앙연감』, 1967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 \_\_\_\_\_, 1969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9).
- \_\_\_\_\_, 1972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 \_\_\_\_\_, 1973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 2) 논문

- 김승규, “기초교육단계에서 교재리용과 경험,” 『예술교육』, 제3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5).

- 김연순, “경제선동을 위한 안삼블지도를 통하여 연주수법, 감정정서의 표현능력을 키워주었다.” 『예술교육』, 제5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15).
- “나래치라 주체예술의 미래여,” 『예술교육』, 제5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15).
- 리동옥, “주체음악예술교육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리면상, “음악대학이 걸어온 10년,” 『조선음악』, 제12호(평양: 조선음악출판사, 1959).
- 박윤옥, “과의훈련지도는 연주교육의 중요한 공정,” 『예술교육』, 제4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8).
- “새해 공동시설을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의 예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 『예술교육』, 제1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4).
- 지복순, “시험규률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속에서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예술교육』, 제3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8).
- 최은경, “학생소년궁전 초기 기타교육의 특성에 대하여,” 『예술교육』, 제2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15).
- 최태영, “음악부문 소학반 입학대상자들에 대한 전공기초시험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예술교육』, 제2호(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16).

### 3) 신문

『노동신문』, 2013년 1월 1일.

### 4) 기타 자료

“수기: 우리가정의 이야기-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연구사 공훈배우 석란희”(2022년12월 31일), <https://www.youtube.com/watch?v=U0eJ4e4t5bM>(검색일: 2023년 1월 20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북한의 예술교육: 북한음악 구술자료집』(서울: 국립국악원, 2013).

전영선·김지니, 『북한 예술의 창작지형과 21세기 트렌드』(서울: 역락, 2009).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KINU 연구총서』, 20~24호(2020).

### 2) 논문

노동은, “북한의 민족음악,” 『한길문학예술총서: 민족음악론』, 제3권(1991), 355~444쪽.

이현주, “북한 피바다식 혁명가극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음악학』, 제3호(2002), 381~402쪽

이효주, “북한의 음악예술인 양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전영선, “북한의 예술교육체계와 예술교육 기관,”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1호(2012), 305~338쪽.

\_\_\_\_\_,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0권 1호(2007), 51~85쪽.

### 3) 기타 자료

“북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종합대학 교수 신영철,” 연합뉴스, 2023년 1월 30일, <https://www.yna.co.kr/view/PYH20230130086000042>(검색일: 2023년 2월 25일).

## A Study of Music Artist Education in North Korea

Lee, Hyo Ju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North Korea, the education of musical artists is closely relat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intention to vanguardize the propaganda value of musical arts. The education of musical artists is carried out in two ways: education in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musical artists and team activities in the general education field. Thus for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classifies the education system of musical artists into 'professional musical artists' and 'amateur musical artists'.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is research finds that professionals are educated through a pyramid-type special education system to train soloists, while amateurs are educated through school music groups, which focus on propaganda activities, and the Children's Palace (Hall) groups, which foster skills for musical performances.

Keywords: music politics, popularization of art, musical art education,

Kim Won Gyun University of Music and Dance, Academy  
of Art, Art Academy of the Korean People's Army,  
Children's Palace (Hall), school music group